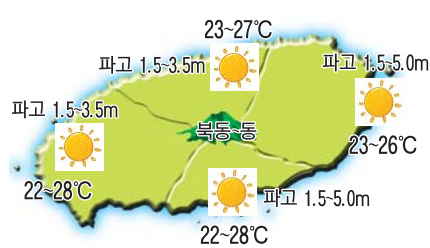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0일 목요일 음 7월 29일 (6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3°C, 낮 최고기온은 26-28°C로 예상된다. 오전에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내릴 수 있겠다. 당분간 해안가 너울이 높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2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2/28°C
모레	흐림	22/29°C

해돋이 06:13 해지기 18:48	달돋이 04:57 달지기 18:14
물때 만조 09:54 22:33	간조 04:25 16:24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	----	------

목요담론



최 화 열

평택대학교 교수

제주 관광은 지금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고물가와 항공료,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 기존의 문제에 더해 최근 잇따른 실종·사망 사건과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논란이 겹치면서 ‘안전한 관광지 제주’라는 이미지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뢰(trust)다. 소비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구매 의사결정은 달라진다. 관광은 특히 그렇다. 관광객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제주 관광, 이제는 ‘안전’을 마케팅하라

기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관광지 에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 관광마케팅의 핵심은 단순히 “제주는 아름답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제주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도와 경찰,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제주 관광안전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도로, 오름, 올레길, 야간 관광지 등에 대한 안전정보와 CCTV, 비상벨, 경찰·소방 대응체계, 긴급 연락처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야 한다. 특히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자신의 위치를 가족 등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관광’을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안전을 관광상품의 일부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심 제주 혼행’, ‘안전한 제주 올레길’, ‘밤에도 안심하는 제주’, ‘가족 안심 제주여행’과 같은 세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안전을 제주 관광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셋째, SNS 시대에 맞는 실시간 위기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진 뒤 뒤늦게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사건이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식 채널을 통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까지 등장하는 시대에는 관광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넷째, 관광객에게만 안전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관광사업자, 렌터

카업체, 숙박업소, 음식점, 여행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제주 관광 생태계 전체가 안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이 제주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이미 충분히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실종 사건들을 단순한 관광 악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주 관광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주 관광의 미래 경쟁력은 관광객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이제 제주가 마케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광상품은 ‘안전한 제주’다.

월드뉴스

韓, 日 사도광산 추도식 3년 연속 불참

추도사 ‘강제동원’ 이견 못 좁혀

한국 정부가 오는 1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3년 연속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올해(사도광산)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추도사 내용과 관련해 한일 간의 틈이 메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이 2024년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 측 협조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한국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연합뉴스

2024년 첫 추도식을 준비하면서도 행사 이름과 추도사 등에서 한국 측과 큰 견해를 보였다.

지난해 두 번째 추도식에서도 일본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한국 측은 불참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된 후에 전시 몰타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옥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도민이 직접 확인하는 도정 ‘뒤편!’



성 민 철

제주도 대변인실

정책은 발표로 끝나지 않는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가 바로 도민 현장 점검단 영상 시리즈 ‘뒤편!’이다.

이 시리즈는 도민이 직접 출연해 도내 주요 정책·사업·행사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이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보

다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민과 행정 사이의 신뢰를 한층 두텁게 다지고자 한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 전달하고,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여주는 행정’을 넘어 ‘바꾸는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격주 1회, 도 유튜브와 JIBS J방플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상황 점검을 시작으로, 보이는 자치경찰 활동,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차례로 담아낼 예정이다.

‘뒤편!’은 단순한 홍보영상이 아니라, 도민이 행정의 눈과 귀가 되어 직접 확인하고 목소리를 내는 참여형 소통 창구다. 앞으로도 도민이 궁금해하는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더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

제주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체전



김 민 정

제주도 전국체전기획과

오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9000여 명의 선수단이 제주를 찾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다. 제주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이번 체전을 단순히 대회를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더 편리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았다.

선수단의 이동부터 숙박, 경기까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항 내 장애인선수단 전용 렌터카 인수구역 마련하고, 탑승교와 리프트 우선 이용, 보안검색대 확대 등을 추진했다. 숙박시설과 음식점에는 휠체어 경사로 626개를 설치 준비했으며, 1200여 대의 차량을 투입하는 수송체계도 갖췄다. 경기장 역시 26곳을 개보수하고 무장애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이러한 준비는 이번 체전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다. 누구나 이동하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제주를 향한 한 걸음이며, 체전 이후에도 도민의 일상에 남을 소중한 성과다.

이제 선수단을 맞이할 시간이다. 제주를 찾는 선수단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 선수들의 도전에 제주가 함께하고, 도민의 응원으로 완성되는 체전. 제주의 모든 마음을 모아 전국 선수단을 힘껏 응원하자.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광양 ← 한국병원 → 오라파출소 → 터미널 → 신제주 →

소리샘 보청기

고리 파이프상사

◆ HI-3P상·하수도관(고리) ◆ PE관 상·하수도관(미래화학)
◆ 제수밸브등 밸브류일체(신진전공)
◆ 이탈방지부속 하수도 맨홀등(대광주철)
◆ 각종 친환경 상·하수도 부속일체 도·소매 (주)YDI

대표 이창빈

고리파이프상사 제주시 변영로 116 Tel. (064)721-8400 Fax. (064)721-8401 HP. 010-3696-4114